

# 목포시-中 렌윈강시 “청년 인재 양성·교육 협력 확대”

### 1992년 자매결연 후 문화·경제 등 교류...中 영재 쌍창 주간행사 초점 목포해양대-강소해양대 ‘공동연구’...직항로 개설·크루즈 취항 협의도

목포시가 박홍률 시장을 단장으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국제 자매도시인 렌윈강시를 방문해 청년인재 양성 및 교육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목포시와 렌윈강시는 지난 1992년 국제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문화,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다.

목포시의 이번 방문은 렌윈강시의 '2024년 화교산(花梨山) 영재(英才) 쌍창(雙創) 주간행사'에 초청받아 체류비 일체를 지원받고 이뤄졌다.

현지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벨트) 렌윈강 청년 대화 행사는 청년 인재들의 창의성과 혁신을 주제로 한 대화가 중심이 되었으며, 특히 두 해양 도시 간의 교육적 협력 확대와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시는 이번 방문에서 영재 쌍창 주간행사에 참석

해 심 정권 렌윈강 시장과의 공식 회담을 갖고 양 도시간 우호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박홍률시장은 심 정권 렌윈강 시장과 회담에서 청년교류 뿐만 아니라 양 도시간 직항로 개설, 카페라-크루즈 취항 등 굵직한 현안도 협의했다.

목포-연운항간 직항로가 없어 청도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이 큼을 인식하고 점진적 직항로 개설 방안을 찾자고 했다. 또한 경제적 인적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정기적인 카페라-크루즈 운항을 위해 장기 프로젝트로 설정해 양 국가계획 반영에 우선 추진하기로 머리를 맞댔다.

이번 방문에서 목포해양대학교와 중국 강소해양대학교 간의 해양교육 및 연구분야 협력강화와 학생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에 대한 업무협약

(MOU)이 이루어졌다.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은 목포해양대 학생 실습선이 연운항 항구에 기항할 수 있도록 연운항 시정에 요청해 긍정적 답변이 오았으며 내년부터 실습선이 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수해양대학교와의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양 대학 문제 해결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항해과와 기관과가 없는 장수해양대의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과 심해 탐사기술이 약한 목포해양대의 기술 고도화 부분이 상호보완적으로 맞아 떨어지 양 대학은 내년부터 학생들을 교류해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해양대와 강소해양대 간의 협력은 두 나라 간 해양 분야의 기술적 교류와 발전을 이끌어낼 중요한 기회이다”며 “이번 MOU 체결이 양 대학의 교육적 성장을 넘어서, 두 도시의 협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렌윈강시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교류 파트너로 삼고 있는 도시로 목포와 렌윈강시의 교류를



박홍률(왼쪽) 목포시장이 심 정권 중국 렌윈강시 시장과 회담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더욱 깊이 있게 확장하고, 특히 청년 인재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무안 ‘반려동물 놀이터’ 내년부터 무료 운영

무안군은 일로읍 오룡리에 5400㎡ 규모의 ‘무안으로 오기 반려동물 놀이터’를 준공(사진)했다고 12일 밝혔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소형견 및 대형견을 구분해 야외 놀이시설, 녹지시설을 비롯해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무안에는 그동안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공원 및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반려인과의 충돌이 잦았다.

군은 이번 반려동물 놀이터 준공을 통해 견종간과 올바른 반려 문화 기반 마련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체계 및 수목의 원활한 활착 및 잔디 정비 후 내년부터 무료로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앞으로 안



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 주민 모두가 함께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해남군 15일 ‘전통놀이 한마당’

### 군민광장서...우수영 강강술래·들소리 등 총망라

해남군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군 전통놀이와 읍면 풍물공연 등이 총망라된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행사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를 비롯해 문내면에서 전승되고 있는 우수영 부녀농요와 우수영 들소리를 차례로 선보인다.

우수영 강강술래는 해남의 대표적인 민속놀이

이자 전라도 해안과 섬지방에 널리 분포 전승되고 있는 세시풍속 놀이다.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문내면 우수영강강술래보존회 시연과 명량대첩축제 온겨레 강강술래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땅끝강강술래단, 해남문화원 강강술래단 등 보급형 강강술래도 선보인다.

우수영부녀농요는 부녀자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는 민요로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

돼 있다.

전라우수영 들소리는 논과 밭에서 들일을 할 때 부르는 소리로 남자들이 불렀던 농요다. 지난 2022년 제63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인 대풍령상을 수상했다.

해남출신 국악 전공자들이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 해원의 풍물굿과 해남군 10개 읍면 연합풍물패 공연도 볼거리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역의 많은 전통 민속예술 분야의 예술인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가을철 해남의 맛과 멋을 함께 느끼며 화합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영암 신혼부부 이사비 최대 140만원 지원

### 22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영암군이 신혼부부 정착지원을 위해 이사비용 등 최대 140만원을 지원한다.

영암군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등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2024년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영암군은 전입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 이사비

용과 40만원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1인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중 올해 군에 전입한 세대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다자녀 가정은 신청일 기준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신안서 싱싱한 우럭회 맛보고 낚시 체험

### 22~23일 송공항서 섬 우럭축제

신안군은 압해읍 송공항 일원에서 22일부터 이틀간 ‘섬 우럭축제’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신안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어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 기간에는 우럭회 시식과 낚시 체험, 경품

추첨,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개최 장소를 우럭 주산지인 흑산도가 아닌 압해도(송공항)로 선정된 것은 풍랑으로 인한 선박 결항 우려와 방문객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다.

송공항은 신안 지역 수산물을 훕깃 등으로 판매하는 음식점 거리가 형성돼 있어 방문객들은 다양한 수산물을 접하고 맛볼 수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진도서 팔도 명창들 실력 겨룬다

### 23·24일 남도민요경창대회

진도군이 주최하고 한국국악협회가 주관하는 ‘제26회 대한민국 남도민요경창대회’가 오는 23·24일 이틀간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남도민요경창대회는 전통예술 대중화와 신예 발굴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명창부 ▲일반부 개인·단체 ▲신인

부 개인·단체 ▲노장부 ▲중·고등부 ▲초등부 총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상, 최우수상에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된다.

참가 방법은 11월 20일까지 국악신문 누리집의 ‘경연대회’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전자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국악협회 진도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For the Lord To the World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www.kwangshin.ac.kr